대신증권에서 투자전략을 담당하는 이경민입니다.

다행히 KOSPI가 2,550선에 바짝 다가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주요국 간의 무역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은 관세 우려 완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논란이 있지만, 미중 무역협상은 또 한 번 관세 불확실성을 레벨다운시킬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파월 연준의장의 스탠스는 여전히 신중하지만… 다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완화적입니다. 4월 고용 둔화, 3월 PCE 둔화를 확인한다면… 좀 바뀌지 않을까요?

5월 7일(한국시간 8일 새벽) FOMC에서 금리동결을 하더라도 QT나 통화정책 스탠스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중국은 또 한 번 경기부양 드라이브를 강조하는 가운데 유럽도 경기 저점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불확실성 완화, 실질적인 상승 동력은 Non-US에서 유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상회 종목이 60%에 달할 정도로 우려보다 양호한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 증시, KOSPI 모두 200일 이동평균선(S&P500 5,700선, 나스닥 18,500선, KOSPI 2,600선) 전후에서는 단기 등락을 감안해야 합니다.

단기 급락 이후 빠르게 낙폭을 만회했고, 추세를 가늠하는 중요 분기점입니다.

단기 과열해소, 매물소화 과정이 예상됩니다.

단기 매매가 가능한 투자자분들은 200일 이동평균선 전후에서 반등 과정에서 수익이 난 업종/종목은 일정부분 현금을 확보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저점에서 잘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단기 매매가 쉽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분기 중에는 2,750선 전후, 올해 안에는 2,900 ~ 3,000p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반기 전망은 6월에 발간되는 자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5월 조정이 있다면 또 한번의 매수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5월 증시 전망 및 투자전략] 궁즉변(窮卽變) : 트럼프, 미중 협상. 변즉통(變卽通) : Non-US 모멘텀, 1Q 실적 시즌”에 작성했습니다.

그동안 무역협상 전개 과정과 향후 예상되는 변화, 연준의 통화정책, 중국, 유럽 경기 흐름 및 정책 등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번 자료에는 향후 실적 발표가 예정된 미국, 한국 주요기업들의 실적 추이를 점검해 봤습니다. 미국은 63 ~ 78p, 한국은 105 ~ 130p에 작성해 놨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파트 때문에 장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KOSPI, 나스닥, S&P500은 물론, 채권금리, 달러화, 원/달러 등의 경로와 주요 변곡점에 대해서도 내용 중간 중간에 정리했드렸습니다.

주요 업종들의 현재 위치, 향후 중요 변곡점, 지지선/저항선 등도 보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한 주 되십쇼!!!

* **[5월 증시 전망 및 투자전략] 궁즉변(窮卽變) : 트럼프, 미중 협상. 변즉통(變卽通) : Non-US 모멘텀, 1Q 실적 시즌**
* **5월 KOSPI Band 2,430 ~ 2,650p. 전약후강 패턴 예상**하단 2,430p : 선행 PER 8.31배(24년 하반기 이후 평균의 -1Std), 확정실적 기준 PBR 0.821배, 선행 PBR 0.77배(24년 이후 평균의 -2Std)  
  상단 2,650p : 선행 PBR 0.84배, 확정실적 기준 PBR 0.9배(24년 2H 이후 평균). 선행 PER 9.18배(24년 하반기 이후 평균의 +1Std)는 KOSPI 2,680선
* 중국 사서오경 중 역경(易經)에 **궁즉변(窮卽變), 변즉통(變卽通), 통즉구(通卽久)**라는 말이 있음.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정세의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는 새로운 국면의 전개로 이어지며, 이는 지속될 수 있다’라는 뜻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트럼프 관세정책은 90일 유예, 무역 협상 국면으로 전환. 이 과정에서 Non-US 경기부양 정책 강화 가시화. 지속성 여부는 체크 필요
* 글로벌 금융시장은 4월초 트럼프 관세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음. 상호관세 90일 유예, 무역 협상 진행, 중국과 협상 추진 등 트럼프가 확실하게 물러선 모습  
  4월 트럼프의 행보로 관세정책의 정점 확인. 향후 관세/통상정책에 대한 불안심리는 진정되고, 불확실성은 완화될 전망. 공포감에 급락했던 글로벌 증시 회복국면 예상  
  이제는 연준의 차례. 미국 경기둔화, 물가 안정을 확인하면서 6월 금리인하 가시성이 높아질 것. 물론, 미국 경기는 시장 우려보다 양호한 둔화로 판단  
  금리인하 기대가 재차 강화될 경우 경기 불안심리를 진정시켜주는 한편, 채권금리, 달러화 하향안정 지속 가능. 단기 등락 이후 25년 저점 하회 예상  
  **S&P500은 5,700선, 나스닥은 18,500선 전후에서 등락** 감안. 단기 급락을 절반정도 되돌린 수준(하락 폭의 50%)이자 200일 이동평균선(추세선) 위치.   
  단기 등락은 과열해소, 매물소화 국면. 1Q 실적 결과에 따른 업종/종목별 차별화가 예상됨에 따라 종목 대응이 중요할 전망
* 한편,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미국 이외 지역과 국가, 특히 중국과 유럽(독일) 중심으로 내수 부양을 위한 정책 대응 또한 강해지는 양상  
  중국 경기 회복이 뚜렷한 가운데 추가적인 내수 부양 정책 강화 & 정책 신뢰 회복은 중국 유동성 모멘텀 개선 및 실물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  
  여기에 유럽의 6번 연속 금리인하 이후 정책 드라이브가 가세하고 있음. 유럽 경기도 저점을 통과하고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 높음  
  이러한 Non-US 경기 회복, 정책 드라이브 강화는 달러 약세로 귀결, 신흥국, 신흥 아시아 증시의 상대적 강세(선진국대비) 지속 전망
* **KOSPI는 단기적으로 2,600선 돌파/안착 시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2분기 중 2,750선을 향하는 상승추세 전개** 예상. 5월 중 단기 등락은 비중확대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선수요 유입, 중국 경기/소비 회복, 환율 효과 등으로 1분기 실적 호조 예상. 낮은 눈높이는 오히려 예상 상회, 서프라이즈로 전환 중  
  4월 추경에 이은 5월 금리인하 예상. 대선 레이스 돌입으로 인한 신정부, 추가 경기부양 기대도 가세. Non-US 모멘텀에 의한 수출 호조에 내수 경기 반등이 맞물릴 것  
  연기금 순매수 지속(국내 주식 비중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경기 회복 기대 유입 시 원화 강세 압력 확대 가능. 외국인 매도 Climax 통과 이후 순매수 전환 가능
* 기존 대신증권 25년 전망은 전강후약 패턴, 상반기 중 고점 통과 예상. Non-US 경기모멘텀 강화 속에 미국 경기 둔화 전망과 5월 이후 트럼프 관세정책 본격화가 근거  
  하지만, 2월 이후 트럼프 관세부과 시작되고, 4월 보편+상호관세 쇼크로 인해 경로 변경. 25년 하반기 예상했던 조정이 빠른 시점에 강하게 유입되었다고 판단  
  따라서 5월 급락, 2,300선 이탈은 중기 조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 **향후 중기 상승추세 재개 전망. 25년 KOSPI Target 3,000p 유지**  
  현재 KOSPI 12개월 선행 EPS는 292p. 26년까지 이익 성장과 함께 1Q 실적시즌 호조로 추가적인 상향조정 가능  
  이 경우 PER 10배 수준(장기 평균)만 반영하더라도 KOSPI 2,900 ~ 3,000선 돌파시도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하반기 전망을 통해 설명 예정
* 투자전략
* **5월초 등락은 2차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 이보전진을 준비할 시점**
* 다수 업종들이 실적대비 저평가 영역 진입. 향후 KOSPI 2,700선 돌파 시도를 염두에 둔 대응력 강화 기회  
  실적대비로도, 주가 측면에서도 낙폭과대 업종인 반도체, 소프트웨어, 건강관리, 자동차, 2차전지, 철강, 화학, 디스플레이, 운송의 반등시도 뚜렷해질 것
* **25년 이익 기여도 개선, 이익 모멘텀 견고 + 낙폭과대 = 반도체, 기계, 2차전지, 제약/바이오, 인터넷, 자동차**
* 현재 가격대부터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확대 전략 유효 & 지속. 1) 미국 채권금리/달러화 안정과 2) Non-US 경기부양 드라이브, 3) 업황/실적 불안심리 진정, 저평가 매력 부각, 4) 연기금 매수 지속 & 외국인 수급 개선 = 낙폭과대 & 실적대비 저평가 대형주 분위기 반전, 상승 동력
* **25년 이익 기여도 개선, 이익 모멘텀 견고 + 단기 가격/밸류에이션 부담 = 조선, 방산, 화장품/의류, 음식료**
*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임에 따라 추격 매수는 자제. 단기 과열해소, 매물소화 과정이 전개될 경우 변동성을 활용한 분할매수 전략 유효